

주간 농업·농촌 동향

주요 농정 이슈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및 지도·단속 강화
동절기 농업면세유 일제점검

거시경제 동향

2013년 2월 수출입물가지수

기획 정보

언론 중심으로 본 한·미 FTA 발효 1년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연구 지원 정보

2013년 2월 농림수산물 수출 실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

주요 농정 이슈_1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및 지도·단속 강화

※ 본 자료는 2013년 3월 13일 농림수산물부에서 발표한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및 지도·단속 강화」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 연방

- 원산지표시제는 '93년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제도를 도입·시행(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08년 시행)
- [대상품목] 농수산물과 가공품 등 868개 품목(음식점 16개 품목)
 - 국산농산물(202 품목),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161 품목), 농산물 가공품(258 품목), 국산·원양산 수산물(191 품목), 수산물가공품(37 품목), 수입수산물(19 품목)
- [평가] 원산지표시제 이행률이 96.1%에 달하는 등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는 물론 유통질서 확립에도 크게 기여
 - **식품안전관리제도 중 인지도 및 신뢰도 조사에서 원산지표시제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음**(2011 농식품 안전관리 인식 국민의식 조사 보고서).
 - ※ 인지도: 원산지표시제(75.1점) > 친환경농산물인증(70.1) > 유기농식품인증(58.4) > 이력추적관리제 (58.2) > GAP(57.9)
 - ※ 신뢰도: 원산지표시제(66.7점) > 친환경농산물인증(62.7) > 유기농식품인증(59.5) > GAP(58.3) > 이력추적관리제(57.5)

□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 [배경] 원산지 관련 연구보고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 등) 건의 및 소비자 여론조사 결과, 음식점 원산지 **대상품목 확대를 지속적으로 제기**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정책만족도는 전체 응답자의 71%가 만족으로 응답, 88%의 응답자가 지속적인 대상품목 확대를 요구(2012 음식점 원산지표시 성과분석, 연구보고서)
 - ※ 확대 시 사회적 후생 순증가분은 2조8천억 원~3조2천억 원

- **[원산지표시 추가 품목] 커피 가공품**(4종: 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 커피, 액상커피), **오디·팽잎·누에고치 등 양잠산물**
 - (커피) 국내 생산은 없지만 최근 품질과 기호를 선호하는 소비자 트렌드 반영하여 추가
 - (양잠산물) 기능성 양잠산업의 활성화를 반영하여 추가
- **[음식점 원산지표시 검토 품목] 콩, 오징어, 조기 등 자급률이 낮은 품목, 수입량과 식품소비량 증가 품목**
 - (현재) 쇠고기, 돼지고기, 쌀 등 12개 품목
 - ('13.6.28일 이후) 양고기(염소 등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를 추가한 16개 품목
 - (향후) 콩, 오징어, 조기 등 추가 검토
- [추진방안] 6.28일부터 시행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 품목과 표시방법 개선 등 변경된 제도에 대해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조기 정착 유도
 - 전국 주요 대도시를 대상으로 “전광판 국가광고” 활용, 동영상 제작·송출
 - 단속보조원·명예감시원(소비자단체 등), 음식점 자율지도원 등 민간 부분의 홍보 활동 병행

□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강화

- [목적] 소비자 알권리를 확보하고 유통질서 확립
- 품목별·취약시기별 집중·특별 지도·단속 강화
- 단속인력의 전문화 및 과학적인 원산지 식별법 지속 개발·보급
 -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연수, 특별교육 등을 확대하는 한편, 전문기관 공동 연구 및 R&D 추진으로 과학적인 원산지 분석기법 등을 지속 개발·보급
- **원산지표시 민간 자율관리를 확대**하고 감시·정보수집 기능 강화
 - 명예감시원(소비자·농민단체 등)을 적극 활용하고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선정 점진적 확대

주요 농정 이슈_2

동절기 농업면세유 일제점검

※ 본 자료는 2013년 3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동절기 농업면세유 일제 점검으로 유통질서 확립」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점검개요 및 결과

- [목적]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의 점검을 통한 **농업용 면세유류의 원활한 공급 및 유통질서 확립**
 - ※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여 영농비 부담 경감을 통한 고부가 농업기반의 구축 지원 제도로써 1986년부터 운영
- [점검기간] '13.1.14 ~ 2.22(40일간)
- [점검횟수] 1,714회, 조사인원: 2,307명, 조사장소수: 7,260개소
- [점검결과] 부정사용 및 불법유통 행위 1,204건(면세액 기준 63억 원 상당)적발
 - **(조세특례제한법 위반) 157건(위반물량 92만 ℓ, 9억 원)**
 - ※ 용도 외 사용, 양도/양수, 폐농기계 기한초과 신고, 농기계 거짓신고
 - **(폐농기계 등 미신고) 1,047건(회수물량 503만 ℓ, 54억 원)**
 - ※ 폐기 및 고장 등 농기계에 면세유 배정, 폐농가에 배정한 미사용분

<동절기 농업면세유 일제점검 결과>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 위반				폐농기계 등 미신고 행위		
	건수	위반물량(L)	회수물량(L)	금액(천 원)	건수	회수물량(L)	금액(천 원)
경 기	4	34,400	12,780	57,640	80	344,626	394,559
강 원	15	32,990	9,566	40,293	56	105,265	121,011
충 북	33	244,028	86,143	153,824	185	508,666	295,499
충 남	17	55,921	74,886	60,578	85	521,684	558,107
전 북	7	105,848	29,988	118,440	84	988,010	1,011,012
전 남	30	136,482	306,576	155,908	208	1,046,668	1,177,207
경 북	29	199,184	393,118	226,669	87	646,204	1,009,491
경 남	12	73,611	119,094	79,073	115	786,220	856,637
제 주	10	38,400	75,508	26,880	147	82,115	14,818
합 계	157	920,864	1,107,659	919,305	1,047	5,029,458	5,438,341

- [점검조치] 국세청과 농협에 통보되어 감면세액 및 가산세(감면세액의 40%) 추징, 향후 2~3년간 면세유 공급 및 판매 중지 처분
- 적발되어 회수된 면세유는 면세유가 부족한 농업인에게 추가 공급
- [추가계획] 연간 사용량이 큰 농가, 연말 집중사용농가 등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위험군 위주로 집중 점검 지속**, 3월 중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와 업무 능력 배양을 위한 농협 담당자 교육 실시
- 농협담당자 부정유통 방지교육: 3.18 ~ 3.27 / 2,500명

□ 주요 적발사례

- 축사시설과 농기계를 임대하고도 면세유를 공급받아 사용
- 사용하지 않는 기계에 대한 면세유를 공급받아 농업용도 외 사용
- 농협이 증거서류를 부실하게 확인하고 면세유 공급
- 농기계 폐기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면세유류를 공급받아 다른 농가에 양도, 일부는 농업용도 외 사용
- 석유판매업자가 면세유 판매 즉시 공급하지 않고, 세무서에 환급신청

거시경제 동향

2013년 2월 수출입물가지수

※ 본 자료는 2013년 3월 13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3년 2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수출물가지수

- **[13.2월 수출물가]** 유가 및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24% 상승**
※ 전년 동월대비 5.6% 하락
- **(농림수산물) 전월대비 1.6% 하락**(전년 동월대비 16.1% ↓)

<주요 농림수산물 수출 품목의 등락>

단위: %

구 분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농림수산물	상승	신선어패류 5.0, 냉동어류 2.0	배 19.1
	하락	냉동참치 -9.0, 배 -1.4	냉동참치 -34.3, 신선어패류 -27.1

- **(공산품) 석탄·석유제품, 화학제품, 수송장비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24% 상승**(전년 동월대비 5.5% ↓)

<수출물가지수 등락률>

단위: %

구 분	가중치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12.11월	12월	'13.1월	2월p ²⁾	'12.11월	12월	'13.1월	2월p ²⁾
총 지 수 ¹⁾	1000.0	-2.8	-0.7	-0.1	2.4	-6.6	-7.2	-8.1	-5.6
		<-0.9>	<0.2>	<1.1>	<0.6>	<-2.4>	<-1.0>	<-1.0>	<-2.0>
농 립 수 산 품	4.3	-2.6	-1.6	-1.2	-1.6	-17.2	-18.3	-17.7	-16.1
공 산 품	995.7	-2.8	-0.7	-0.1	2.4	-6.6	-7.2	-8.1	-5.5
섬유 가죽제품	41.9	-2.0	-1.0	-1.0	1.9	-5.3	-8.2	-9.4	-5.9
석탄 석유제품	123.9	-4.9	-1.1	1.1	5.9	-7.7	-6.8	-10.2	-6.3
화학제품	173.8	-2.1	0.7	0.1	2.3	-1.8	-2.5	-5.6	-4.8
제1차금속제품	95.7	-2.8	-1.7	-1.1	1.9	-9.4	-9.8	-11.0	-9.1
일반기계제품	90.8	-1.9	-1.2	-1.2	1.9	-2.9	-4.9	-6.0	-2.7
반도체 전자표시장치	125.8	-3.7	-0.8	2.2	1.4	-10.3	-9.3	-6.3	-4.1
통신 영상 음향기기	59.6	-1.9	-1.1	-1.3	1.8	-16.3	-16.0	-15.6	-13.0
수송장비제품	111.3	-2.0	-0.5	0.9	2.1	-4.9	-6.1	-3.5	-0.2

주: 1) < >내는 계약통화기준임.

2) 당월 지수는 잠정치이며, 익월 지수 공표 시 확정됨.

□ 수입물가지수

○ [13.2월 수입물가] 유가 및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27% 하락

※ 전년 동월대비 8.6% 하락

- (원자재) 커피·원목 등 농림수산품이 상승, 원유·천연가스(LNG) 등 광산품도 올라 전월대비 4.0% 상승(전년 동월대비 10.0% ↓)
- (농림수산물) 전월대비 1.9% 상승(전년 동월대비 4.2% ↓)

<주요 농림수산물 수입 품목의 등락>

단위: %

구 분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농림수산물	커피 5.0, 원목 4.2, 천연고무 3.8, 도축부산물 3.5, 우유 3.2, 콩 3.0, 과일 2.3, 돼지고기 1.0, 밀 1.0, 옥수수 0.4	쇠고기 0.3, 도축축산물 10.2
	상승	
	하락	천연고무 -20.3, 원면 -12.1, 커피 -8.2, 옥수수 -5.0, 돼지고기 -10.8, 냉장어류 -14.5, 과일 -2.8

- (중간재) 석탄·석유제품,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24% 상승(전년 동월대비 8.3% ↓)

<수입물가지수 등락률>

단위: %

구 분	가중치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11월	12월	1월	2월 ²⁾	11월	12월	1월	2월 ²⁾
총 지 수	1000.0	-3.0	-1.0	-0.8	2.7	-7.9	-9.0	-10.6	-8.6
		<-1.1>	<0.0>	<0.6>	<1.0>	<-3.8>	<-2.7>	<-3.3>	<-4.6>
원 자 재	346.4	-3.6	-1.1	0.1	4.0	-10.6	-11.3	-12.1	-10.0
농림수산물	21.6	-2.1	-1.7	-0.7	1.9	-5.7	-3.3	-5.6	-4.2
광 산 품	310.3	-3.9	-1.1	0.1	4.1	-11.1	-11.7	-12.4	-10.4
중 간 재	467.1	-2.7	-1.0	-1.2	2.4	-6.9	-8.1	-10.4	-8.3
석탄 석유제품	78.2	-4.0	-1.3	0.3	4.5	1.0	-2.4	-8.0	-8.5
화학제품	98.1	-2.1	-1.3	-1.6	2.3	-4.5	-4.5	-7.6	-5.5
철강1차제품	36.4	-3.1	-1.0	-1.1	2.0	-15.6	-17.0	-17.6	-14.2
비철금속과 1차제품	40.8	-4.4	1.3	-0.4	2.4	-5.7	-3.9	-7.4	-7.0
일반기계제품	21.8	-3.1	-1.9	-2.9	-0.1	-10.0	-12.0	-14.7	-13.4
전기 전자기기	108.2	-1.5	-1.2	-1.9	1.9	-9.5	-11.4	-11.6	-7.9
자 본 재	94.7	-2.3	-1.4	-2.0	1.0	-5.7	-7.7	-9.5	-6.8
소 비 재	91.8	-1.6	-0.7	-1.1	1.3	-2.1	-3.5	-4.8	-3.1

주: 1) < >내는 계약통화기준임.

2) 당월 지수는 잠정치이며, 익월 지수 공표 시 확정됨.

기획 정보

언론 중심으로 본 한·미 FTA 발효 1년

※ 본 자료는 일간지·농업전문지 언론동향을 참고하여 동향분석실에서 작성한 것임.

□ 한·미 FTA 체결 및 발효

○ '06년 6월 협상개시 5년 8개월만, '07년 6월 공식 서명 이후 몇 년간의 논쟁 끝에 한·미 FTA(12.3.15) 정식으로 발효

- 미국은 우리나라에 자동차 등 8,628개 품목, 우리나라는 미국에 와인과 가방 등 9,061개 품목의 관세 즉시 철폐, 단계적 철폐까지 포함하면 10년 내에 모두 1만1,068개 품목

※ 발효 즉시 관세 철폐 제품이 전체 미국산 수입품의 80.5%

<한·미 FTA 관세철폐 품목>

즉시 철폐	점진적 철폐
포도주(45%), 체리(24%), 건포도(21%), 와인(15%), 의류(13%), 가방류(8%)	레몬(30%, 2년), 오렌지주스(54%, 계절관세), 자몽(30%, 5년), 키위(45%, 15년), 생삼겹살(22.5%, 10년), 닭고기(18~22%, 10년), 맥주(30%, 7년), 천연꿀(243%, 2년), 감자(304%), 옥수수(324%), 식용대두(407%) 등 곡식류는 일정한 수준 까지 무관세

○ 미국, 유럽연합(EU), 동남아국가연합(ASEAN)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맺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

- 한·미 FTA 발효는 동아시아 정치 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이기도 하며, 명실상부한 FTA 허브로 발돋움하는 계기 마련

○ 세계적으로 300건 이상의 지역 간 무역협정이 발효되어 있고, 세계 교역에서 FTA가 차지하는 비중은 50% ⇒ FTA는 세계경제 핵심 국가들에게 경제 성장의 돌파구

○ 한·미 FTA는 거대한 시장에 진출, 즉 경제적 영토를 확대하는 기회인 반면 빈부격차 심화·농축산업 위기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기대 반, 우려 반

○ 야당 정치권, 한·미 FTA 발효 중지 및 재협상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정부에 대해 비판

- 농업계, **농업·농촌에 대한 큰 피해**와 함께 **농민 생존권, 국민들의 먹을거리 기본권과 건강권에 대한 우려**로 한·미 FTA에 대한 반대 고조
 - 규탄대회 및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를 통해 크게 반발, ‘불균형 협상’이라고 강조하며, 한·미 FTA 즉각 중단 및 무효화 주장
- 한국무역협회, (긍정적) 한·미 FTA로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섬유, 의류 및 섬유제품이 가장 큰 수혜** ↔ (부정적) 미국산 체리와 오렌지 등 농산물과 소고기 등 육류가 몰려들어 **국내 농업과 제약업계에 상당한 타격** 예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원, (긍정적) 무역 및 국내총생산(GDP) 증가, 일자리 창출 등 **거시경제적 효과**와 함께 **다양한 상품의 선택에 따른 소비자 편의 제고** ↔ (부정적) **산업구조 개혁, 농어촌 붕괴, 빈부격차 확대** 등 전망

<한·미 FTA 발효 이후 장기적인 경제 효과>



주: 향후 15년간, GDP 및 소비자 이익은 10년간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 안·미 FTA 발효 후 1년의 동향

<한·미 FTA 체결 전·후 주요 품목의 대미 수출 현황>

단위: 달러, %

품목	FTA 발효 전 (2011.3월~2012.1월)	FTA 발효 후 (2012.3월~2013.1월)	증가율
자동차	84억3,135만	102억1,565만	21.2
석유제품	24억4,450만	29억1,336만	19.2
기계류	207억3,874만	241억7,330만	16.6
자동차 부품	46억4,296만	52억2,738만	12.6
농림수산물	5억2,078만	5억6,592만	8.7
고무제품	15억4,098만	16억5,420만	7.3
섬유류	12억5,804만	13억4,644만	3.7

자료: 한국무역협회

- 관세청·한국무역협회, **한·미 FTA 발효 후 '13.1월까지** 자동차 부품, 석유 등이 호조를 보이며, **대미 수출액·대미 수입액*** 전년 동기대비 각각 **2.67% 증가, 7.35% 감소** ⇒ **대미 무역흑자 44%(102억 달러 → 147) 급증**
※ 대미 수출액 538억 달러, 대미 수입액 391억 달러
- 한·미 FTA 발효 당시 농업 분야는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됐던 분야로 **세계 최대의 농업 생산국으로 가격경쟁력이 우수한 미국산 농산물**의 관세가 인하되면 **국내 농가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
- 그러나, 당초 피해를 염려했던 농업 분야는 **미국산 오렌지, 체리 등 과일 수입이 급증**했지만 **농산물 전체 수입액은 오히려 17.4% 감소**(46억 달러 → 38), **김치, 김, 홍삼 조제품 등 농산물 대미 수출은 12.5% 증가**
 - 미국 가뭄 탓에 미국산 옥수수 수입 급감, 지난해 4월 미국 광우병 발생, 한우 가격 하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감소
-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산 오렌지, 포도의 수입 급증함에 따라 국내산 과일 소비 위축으로 직결되어 국내 과일 재배 농가에 큰 타격
 - ※ '12.3월 발효 후~12월까지 미국산 오렌지 수입액 1억4,800만 달러(전년대비 33.4% 급증), 체리와 포도 수입도 같은 기간 각각 78%, 21.6% 급증
 - 미국산 과일의 수입 급증은 관세 인하로 가격경쟁력이 크게 높아진 탓이며 국내산 과일 소비에 그대로 영향을 줌.
 - ※ 농경연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1/4이 미국산 오렌지 체리 구매를 늘리되 국산 과일의 소비를 줄였다고 응답
- 기획재정부, 지난해 관세 수입이 9조8,157억 원으로 전년대비(10조9,901억 원) **10.7% 감소**해 **'05년 이후 7년 만에 감소**
 - **실효관세율***도 **1.66% 사상 최저**이며, 관세 수입 감소는 개별소비세, 주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 관세와 연동하는 다른 세금도 감소
 - ※ 전체 수입액 중 관세징수액 비율
 - **통상 환율과 유가가 오르면 관세수입이 증가**하지만 이와 같이 **관세 수입이 감소한 것은 관세율 인하·철폐한 FTA 영향**으로 분석

□ 안·미 FTA 발효...앞으로의 전망

- 한·미 FTA 효과는 **아직 대기업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한·미 FTA를 통한 미국시장 선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중요
 - 미·EU FTA 가시화 및 일본까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에 적극 나서는 등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여건 속에서 **한국의 선점 효과는 감소될 전망**
-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보완,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쇠고기시장 추가 개방 등 예상되는 미국의 압박에 대한 전략적 대응, 유예기간 만료된 일부 조항의 추가 법령 정비 작업 문제 등이 해결해야 할 숙제
- 한·미 FTA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려면 관세 철폐의 기회를 활용, 상품 개발·현지 마케팅 강화 등 **적극적인 대미 농산물 수출**에 나설 필요

※ 참고문헌

- 외교통상부_www.mofat.go.kr
- 경향신문 보도자료 「한 미 FTA 발효 1년, 투자자소송 재협상 등 '미제' 수두룩」 (2013.3.14)
- 경향신문 보도자료 「한 미 FTA로 작년 관세 수입 감소」 (2013.3.13)
- 아시아경제 보도자료 「한 미 FTA 1년,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2013.3.13)
- 한국경제 보도자료 「한 미 FTA 하면 망한다던 사람들 다 어디갔나」 (2013.3.13)
- 동아일보 보도자료 「한 미 FTA 1년, 44% 늘어난 대미 무역흑자」 (2013.3.11)
- 연합뉴스 보도자료 「한 미 FTA 1년 농업 분야 선방...대미수출 되레 호조」 (2013.3.10)
- 매일경제 보도자료 「한 미 FTA 효과 오렌지 포도 싸졌다」 (2013.3.8)
- 연합뉴스 보도자료 「한 미 FTA로 오렌지 포도 수입 급증」 (2013.3.7)
- 헤럴드경제 보도자료 「미국산 오렌지 포도 수입급증 한 미 FTA 과일농가에 직격탄」 (2013.3.7)
- 한국농어민신문 보도자료 「한 미 FTA 발효」 (2012.3.19)
- 서울경제 보도자료 「"올 농식품 對美 수출 7억弗로 확대"」 (2012.3.15)
- 동아일보 보도자료 「1만 원짜리 와인 세금 2000원 줄어...정부 "값 인하 행길 것"」 (2012.3.14)
- 세계일보 보도자료 「한·미 FTA 관세인하 효과 '기대半 우려半'」 (2012.3.14)
- 조선일보 보도자료 「한 미 FTA 발효, 더 큰 '기회의 문' 여는 출발점으로」 (2012.3.14)
- 한국경제 보도자료 「한 미 FTA 발효 3월 15일 발효...단군 이래 최대 통상국가로」 (2012.3.14)
- 아시아경제 보도자료 「삼겹살 닭고기 관세는 10년간 천천히 내려」 (2012.3.13)
- 서울경제 보도자료 「한 미 FTA 발효...무관세 시대 열려」 (2012.3.12)
- 문화일보 보도자료 「미, FTA비준 '카운트다운'...한, 연내발효로 '화답'」 (2011.10.4)
- 아시아경제 보도자료 「이행법안 미의회 제출...급물살 탄 한 미 FTA 어떻게」 (2011.10.4)

[별첨자료] 안·미 FTA 관련 주요일지

일 정	주 요 내 용
2006년 1월 18일	• 노무현 대통령, 신년연설 통해 한·미 FTA 협상의지 발언
6월 5일	• 1차 협상 개시
2007년 4월 2일	• 한·미 FTA 타결
6월 16일	• 미, 노동·환경 등 7개 분야 수정안 제외
6월 21~27일	• 한·미 FTA 추가협상(1차 서울, 2차 워싱턴)
6월 30일	• 한·미 FTA 합의문 공식 서명
2008년 4월 18일	•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연명제한 단계 해제 합의
6월 21일	• 한·미 통상장관회담, 월령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합의
2009년 4월 22일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11월 19일	• 한·미 정상회담(서울) FTA 진전 협력 합의
2010년 6월 26일	• 한·미 정상회담(토론토), 오바마, FTA 새로운 논의 지시
12월 3일	• 한·미 통상장관회의(미국 메릴랜드주) FTA 추가협상 타결
2011년 2월 10일	• 한·미 통상장관, FTA 추가협상 합의문서 서명 교환
5월 4일	• 미 무역대표부, 의회에 FTA 비공식 협의 절차 개시 제안 • 국회 외통위, '번역오류'로 비준안 철회
6월 3일	• 정부, 새 비준동의안 국무회의 의결
7월 7일	• 미 상·하원, FTA 이행 법안 초안 채택
9월 7일	• 미 하원, 일반특혜관세(GSP) 제도 연장안 처리, FTA 비준절차 돌입
9월 16일	• 국회 외통위, 한·미 FTA 비준안 상정
9월 22일	• 미 상원,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안 가결
10월 3일	• 백악관,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 의회 제출
11월 22일	•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2012년 3월 15일	• 한·미 FTA 발효
5월 15~18일	• 제1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워싱턴)
11월 7~8일	• 한·미 FTA 분과위 개최: 농업위원회, 섬유위원회, 정부조달작업반(워싱턴)

※ 본 자료는 3월 11일~15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

□ 유통계열와 직거래 확대

- 정부, 5월까지 농산물 유통개선 종합대책 확정…(단기적) 농·수협 중심의 유통계열화를 통해 유통단계를 축소, 직거래 확대, (장기적)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 농산물 물류 개선, 산지 규모화 등 추진.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를 위해 우선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권역별 농산물도매물류 센터 확대 건립. 도매물류센터는 올해 경기 안성에 이미 건립 완료, ('14년) 전남 장성과 경남 밀양, ('15년) 제주와 강원도 각각 건립. 이를 통해 농협의 판매 비율을 청과물 ('12년) 12% → ('16년) 25%, 쌀 ('12년) 10% → ('16년) 36%까지 높이기로. ▲축산물에 대해서는 협동조합형 대형패키지 육성…농가가 생산한 축산물을 지역축협이 수집·공급하면 농협중앙회(안심축산)가 도축·가공·유통·판매를 책임지는 체계. ▲농산물 수급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배추 등 품목별로 '가격 안정대' 설정해 안정대를 벗어나면 매뉴얼에 따른 단계별(주의·경계·심각) 안정 조치

자료 : 농민신문(2013.3.11)

□ 돼지 공급과잉 속 수입은 지속 증가

- 돼지 공급과잉으로 돼지고기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폭락하고 있음에도 돼지고기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수입축산물 검역 검사 실적을 통한 돼지고기 연도별 수입량…('11.2월) 3만9,158톤 → ('12.2월) 5만7,900톤 → ('13.2월) 4만6,218톤. 이에 따라 농식품부,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지속되고 있고, 가격차가 좁혀진 틈을 이용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3.11~4.7일까지 특별 단속…돼지고기 도·소매업체, 식육가공업체 및 정육식당 등 돼지고기 유통이 많은 판매업소와 원산지 관리가 취약한 축산물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을 중심으로 실시

자료 : 농축유통신문(2013.3.12)

□ 안돈 최대위기 속 수입육 기세 등등

- 돼지고기가격 하락으로 한돈 농가들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수입 돼지고기 시장이 더욱 공고해지는 양상. FMD(구제역)으로 국내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때 수입육이 국내 시장을 뚫은 데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저가의 수입육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 특히 수입 업체들은 자금 운용상 수입육을 계속 들여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시장 상황은 더욱 악화. 돼지고기 수입(검역기준)…('04년) 10만8,832톤 → ('06년) 21만555톤 → ('08년) 21만4,290톤 → ('11년) 37만248톤*. 여기에 한·EU, 한·미FTA가 발효되면서 돼지고기 수입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농경연 농업전망에 따르면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 및 수입육 재고 증가에 따라 올해 돼지고기 수입량은 감소할 전망이지만, FTA에 따른 관세 인하와 육류 수요 증가로 '14년 이후 돼지고기 수입량은 지속적인 증가세 예측

※ 특히 '11년의 경우 FMD 발생으로 국내산 돼지고기 공급이 원활하지 못함.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2013.3.11)

□ 안우 육질 꺼야 심상찮다

- 한우 육질이 갈수록 떨어져 육질 고급화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축산물품질평가원, 한우 등급판정 결과, ▲육질 1등급 이상(1++, 1+, 1등급) 출현율…('13.2월) 47.3%, ('13.1월) 61%보다 13.7%p↓, ('12.2월) 55.7%보다는 8.4%p↓. ▲한우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등급판정 제도가 본격 시행된 ('93년) 10.7% → ('99년) 50.4% → ('10년) 63.1% → ('11년) 62.4% → ('12년) 58.0%를 기록하며 '11년부터 하락세, 올해는 더욱 악화될 조짐. 이처럼 육질등급 저하를 일부에서는 사육마릿수 감축 정책에 따라 암소(육질이 좋지 않은 저능력 암소)가 많이 도축*된 것이라고 설명. 하지만 암소보다는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거세우의 육질 저하가 훨씬 심각. ▲고급육 생산하기 위한 거세우 육질 최고 등급인 1++…('13.1월) 19.4% → ('13.2월) 18.1%, 육질 1+등급도 ('13.1월) 34.0% → ('13.2월) 32.2% 하락세. 반면 ▲거세우 2등급과 3등급 비율…('13.1월) 15.67% → ('13.2월) 17.37%로 상승. 한우 육질 저하 현상이 심화된 것은 농가들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 사육 의욕 저하가 원인

※ 실제 '13.2월 암소도축률 58.6%로, 1개월 전(53.1%)보다 5.5%p 높은 것으로 집계

자료 : 농민신문(2013.3.13)

□ 미국산 쇠고기, 오뚜산 계지고 1위

-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2월 말 현재 쇠고기 수입량은 4만6천864톤으로 전년 동기대비(4만663톤) 15% 증가. 이 중에서 미국산이 2만1천507톤으로 45.8% 차지하며 호주산(2만6톤, 42.6%)을 앞질러 1위. 이어 뉴질랜드(4천888톤) > 캐나다산(402톤) > 멕시코 (33톤) 순. 또한 지난달 처음으로 수입되기 시작한 칠레산 쇠고기는 25톤 수입

자료 : 축산신문(2013.3.11)

□ 엔와아락 신선농산물 수출 직격탄

- 일본 엔와 환율 하락으로 신선농산물 수출에 직격탄. 지난해 수출 호조를 보였던 파프리카와 딸기 등 신선농산물 수출량 급감. 딸기(26.2%), 인삼(13.8%), 사과(101.8%) 등은 증가한 반면 파프리카(47.2%), 김치(24.8%), 장미(55.6%) 등은 부진. 농식품부, 2월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은 5.4억불(전년 동기대비 14.5% 감소), ▲부류별...신선·가공·수산물식품이 각각 △13.6%, △12.3%, △19.5%로 농식품 전반적인 감소세. 2월 농식품 수출 하락은 세계경기침체 지속과 주요 수출국인 일본 엔저 현상 등 대외 수출 여건 악화와 중국의 춘절휴일에 따른 중국 통관 지연, 지난해 호조세를 보였던 껌(33.8%), 파프리카(47.2%) 등 주요 품목 수출 감소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 ▲2월 국가별 농식품 수출...대만(21.9%), 러시아(13.7%), ASEAN(12.2%) 시장이 수출 증가세, 중국(36.7%), 일본(24.0%), EU(18.0%)는 감소. 농식품부, 최근 환율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 및 농가를 수시로 방문하여 현장애로를 적극적으로 청취·해소하는 한편, 해외 정보조사, 안테나샵을 통한 마켓테스팅, 바이어 알선 등 수출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식품 업체들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

자료 : 원예산업신문(2013.3.13)

□ 농촌 학생들 통학 전쟁

-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전세 통학버스가 만성 적자로 운행 중단, 학교 통학버스가 없는 농촌지역 중·고등학생들도 군내버스 운행시간이 등하교 시간과 맞지 않아 통학에 어려움.

군내버스 운행시간은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을 감안해 재조정, 통학버스도 같은 군지역에서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

자료 : 농민신문(2013.3.11)

□ 서울시 대형마트 판매제한 품목 두고 '시끌'

- 서울시,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을 위해 채소 등 판매제한 품목 선정해 논란
 - (재)한국중소기업학회에 의뢰한 용역을 통해 대형마트·SSM(기업형 슈퍼마켓) 판매조정가능 품목 51개 선정
- 지난해 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의무휴업을 진행한데 이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추진
- 선정된 51개 품목...담배, 소주, 맥주, 막걸리 등 골목상권에서 잘 팔리는 기호식품 4종을 포함한 채소 17종, 신선·조리식품 9종, 수산물 7종, 정육 5종, 건어물 8종, 기타 1종 등
 - 이 가운데 채소부문은 콩, 콩나물, 오이, 애호박, 양파, 대파, 감자, 고구마, 마늘, 풋고추, 상추, 시금치, 배추, 양배추, 무, 열무, 알타리무 등
- 이번에 선정된 리스트를 토대로 4월 초 공청회 개최, 이해관계자들·일반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방향 모색
 - 서울시내 SSM이 출점해 인근 중소상인으로부터 사업조정 신청이 들어올 경우 이 51개 품목 리스트를 놓고 SSM이 판매하는 품목의 범위를 조정하는 상생리스트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이런 가운데 산지에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산지 출하 및 물류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발
 - 대형유통업체 및 SSM이 농산물의 출하처 중 하나로 자리 잡은 가운데 품목제한으로 출하가 불가능해질 경우 도매시장으로 물량이 집중, 그에 따른 가격 하락 등의 문제 발생
 -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는 산지유통의 흐름을 막아 소비자들의 발길을 끄는 것 보다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 상품의 품질 향상, 가격 경쟁력 구축 등이 우선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2013.3.14)

연구 지원 정보

2013년 2월 농림수산물 수출 실적

※ 본 자료는 2013년 3월 8일 농림수산물부에서 발표한 「2월 농림수산물 수출 5.4억 불」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종합

- **[13.2월 농림수산물 수출] 5.4억 불로 전년 동월(6.3억 불)대비 14.5% 감소**
 - 부류별로는 **신선농식품 70.6백만 불, 가공식품 324.2백만 불, 수산물 146.9백만 불**로 각각 전년 동월대비 각각 **13.6%, 12.3%, 19.5% 감소**

<2013년 2월 부류별 농림수산물수출 실적>

단위: 백만 불, %

구 분	'12년 2월	'13년 2월	증감률(%)
신 선	81.7	70.6	△12.3
가 공	369.5	324.2	△19.5
수 산	182.6	146.9	△13.6
합 계	633.8	541.7	△14.5

○ [2월 농식품 수출 하락 원인]

- 세계경기침체 지속과 주요 수출국인 **일본 엔저 현상** 등 대외 수출 여건 악화
- 중국의 춘절휴일(29~15)에 따른 중국 통관 지연
- 지난해 호조세를 보였던 **귤련(△33.8%)**, **파프리카(△47.2%)** 등 주요 품목 수출 감소

□ 부류별

- **[신선농산물]** 딸기(26.2%)·인삼(13.8%)·사과(101.8%) 등은 증가, 파프리카(△47.2%)·김치(△24.8%)·장미(△55.6%) 등은 부진
 - **(딸기)** 홍콩 등 주요 수출국의 수출 증가와 러시아 항공운임 인하 MOU 체결에 따른 물류비 절감 및 동남아 시장에서의 판촉 등 신시장 개척 노력으로 러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호조세
 - **(파프리카)** 출하량 감소와 엔저현상으로 인한 수출물량의 내수 전환 등으로 수출액 감소

- **[가공식품]** 제3맥주(32.6%)·음료(2.7%)·비스킷(3.7%) 등이 증가, 막걸리(△43.6%)·조제분유(△13.9%)·커피조제품(△37.2%) 등은 감소
 - **(3맥주)** 일본자국산 제품과의 가격 경쟁력 우위로 지난해 8월부터 지속적인 증가세
 - **(귤련)** 홍콩, 대만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최대시장인 중동 지역에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며 당월 33.8% 하락
 - **(조제분유)** 對중국 수출 호조세 속에서 베트남, 홍콩에서의 수출이 감소하며 13.9% 감소
- **[수산물]** 김(14.7%)·오징어(18.3%)·참치(13.6%) 등이 증가하였으나, 굴(△59.7%)·전복(△5.4%)·넙치(△11.2%) 등은 감소
 - **(굴)** 2월 초 대미 수출이 재개되었으나, '12년 수출중단 이전의 미국 현지 재고 소진과 일본 바이어·소비자 신뢰회복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동기대비 59.7% 감소
 - **(김)** 한·미 FTA로 인한 관세철폐 효과와 건강식품 이미지를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였고, 중국시장 소비 증가로 전체 14.7% 증가
 - **(오징어)** 베트남으로 냉동오징어 수출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전체 수출액 5.0백만 불로 전년 동월대비 18.3% 증가

□ 국가별

- **[13.2월 국가별 농식품 수출]** 대만(21.9%)·러시아(13.7%)·ASEAN(12.2%) 시장이 수출 증가세를 주도하였으나, 중국(△36.7%)·일본(△24.0%)·EU(△18.0%)는 감소
 - **(일본)** 전년 동월대비 24.0% 감소한 146백만 불
 - ※ 호조품목: 제3맥주, 커피조제품 / 부진품목: 김치, 김치, 파프리카
 - **(중국)** 전년 동월대비 36.7% 증가한 64백만 불
 - ※ 호조품목: 자당, 조제분유, 김, 인삼 / 부진품목: 비스킷, 명태, 커피조제품
 - **(아세안)** 전년 동월대비 12.2% 증가한 100.5백만 불
 - ※ 호조품목: 오징어
 - **(미국)** 전년 동월대비 8.6% 증가한 59.4백만 불

- (EU) 전년 동월대비 18.0% 감소한 33.7백만 불
 - (대만) 전년 동월대비 21.9% 증가한 18.6백만 불
- ※ 호조품목: 인삼, 권련, 김, 고등어 / 부진품목: 커피조제품, 라면

<2013년 2월 국가별 농림수산물 수출 실적>

단위: 천 톤, 백만 불, %

구 분	'11년	'12년	당월실적(2월)			누계실적(1~2월)		
			'12년	'13년	증감률	'12년	'13년	증감률
전 체	7,691.3	8,006.1	633.8	541.7	△14.5	1,141.6	1,195.6	4.7
일 본	2,374.2	2,374.2	192.1	146.0	△24.0	358.7	327.1	△8.8
중 국	1,380.0	1,278.5	101.2	64.0	△36.7	178.7	179.0	0.2
미 국	599.8	664.0	54.7	59.4	8.6	102.9	113.0	9.8
러시아	242.7	259.0	17.9	20.4	13.7	32.0	33.7	5.2
홍 콩	305.5	297.2	21.4	23.2	8.3	43.1	57.9	34.3
대 만	261.0	253.8	15.3	18.6	21.9	32.8	42.7	29.9
ASEAN	1,031.9	1,031.9	89.6	100.5	12.2	155.9	196.1	25.8
E U	362.9	419.6	41.0	33.7	△18.0	75.0	68.7	△8.4
기 타	1,133.3	1,427.9	100.6	75.9	△24.5	162.5	177.4	9.3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